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diakonia)는 그리스어로 식탁에서 시종드는 것으로 영혼구원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막10:45)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섬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춘천동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 기고를 받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에서는 동부교회내뿐 아니라 외부의 좋은 글도 받아 게재기로 합니다.
시, 수필, 콩트, 신앙 간증, 평론, 정보소개 등 종류와 상관없으며 내용은 반드시 기독교(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반기독교적이거나 특정 의도의 글
또는 상업적인 목적의 글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글을 접수하며 선정된 글에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동부교회 교우 여러분과 일반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이인호 010-6270-1744 / lihbingo@hanmail.net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표지사진 :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벚꽃길(이인호 作)

2019년 통권 70호

창간 2001년 5월 6일

발행일 2019년 4월 14일

발행처 춘천동부교회

발행인 김한호

담당교역자 박도준

편집위원장 임양숙

부위원장 이인호

사진 전경해

편집위원 임양숙, 정현숙, 김지원, 이예림, 오주혜

(24353)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8-6

TEL 033)252-5959 FAX 033)241-1999

홈페이지 <http://chdongbu.or.kr>

아름다운 이야기

70th



5월의 찬양



유명애 (Yoo Myoung Ai)

프로필(이력)

- 개인전 10회, 박정화-유명애 모녀전 5회
- 제10회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예술 대상수상 (기독교 문예협)
- 제2회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예술 선교대상수상 (한기총)
- 한국수채화협회, 신미술회, 한국 미협 자문위원
- 제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페스티벌 운영위원장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풍류1길 84-10 예예동산



THE ARUMDAUN STORY
2019.04. VOL.70

디아코니아

28

방글라데시
장년부 해외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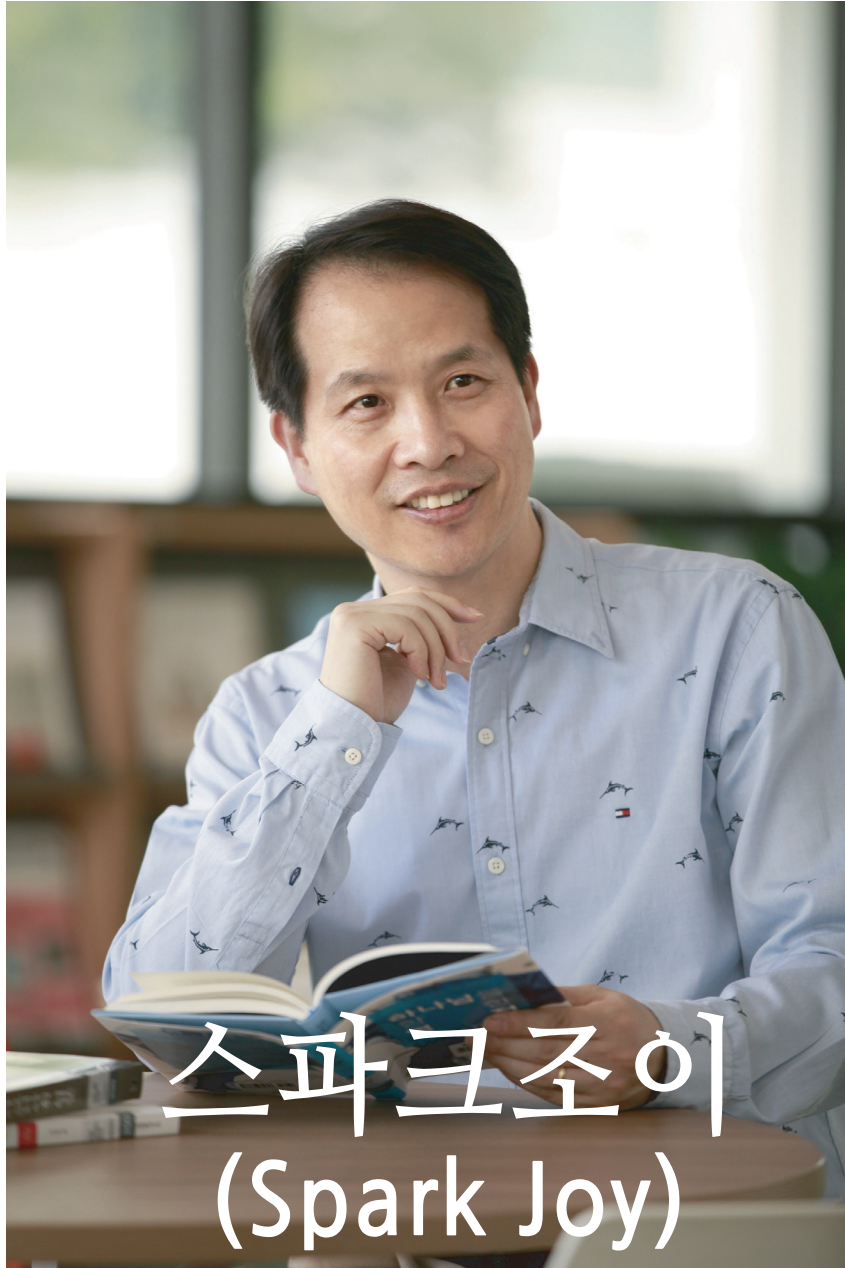
가 불만한 곳

30

춘천 카페 나들이(느린시간, 씨엘, 예와생)



어부의 눈	04
교구이야기	06
인사드립니다 [이백석 목사]	18
신앙에세이	22
차 · 차 · 차	24
청춘예찬	26
[화보] 방글라데시 장년부 해외선교	28
가 불만한 곳	30
포토에세이	35
추천도서	36
동부소식	38



돈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콘도 마리에'(Marie Kondo, 이하 콘도)입니다. 이 여인은 정리정돈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콘도의 책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콘도의 정리 노하우는 '비우기'입니다. 옷을 개는 법,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정리법으로도 유명하지만, 특히 '스파크조이(Spark Joy)'를 통한 정리법으로 더 유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리할 때 이것을 버려야 되나, 계속 갖고 있어야 하나 결정을 해야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Does this spark joy?" 이 물건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Spark'가 일어나서 기쁨이 샘솟으면 그것은 보관해야 할 물건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쓴 편지글들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나 오늘날의 사회는 모두 무언가에 홀려듯 마취되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달음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

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삶을 돌아보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도 분주하게 살다보면 여기저기 묶은 때가 생깁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묵혀두고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

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주의 말씀 안에서 닦아내지 않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흔적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미뤄 두었던 삶의 공간을 이제는 시간을 내어 정리해야 합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과 성접대 사건으로 계속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무엇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정리를 못하고 방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아무런 의식 없이 마치 무언가에 홀려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아내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그 남편이 재혼을 하게 돼서 제가 또 주례도 서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일 아닙니까? 한 가정의 장례식과 결혼식을 다 집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죽자마자 1년 만에 재혼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유언으로 자신이 죽게 되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여성과 반드시 결혼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중국 선교를 위하여 다 사용해달라고 하였고, 그 유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남편이 영원히 자신의 남편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자녀로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 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남편도 주님의 것이고, 자녀들도 주님의 것이고, 재산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기에 인생의 마지막에 버릴 것이 무엇

인지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청지기적인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떠나보내고, 영원히 가져가야 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스파크조이(Spark Joy)'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뜻깊고 의미 있는 삶의 정리가 일어나 예수님의 발자취만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글 김한호 담임목사





저의 고향은 경기도 청평이고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춘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낯설고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남편과 살면서 아이들을 하나 둘 키우다 보니 어느새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곳이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2남 2녀의 자녀들을 슬하에 두고 있으며 첫째 딸 지희숙 둘째 딸 지현숙 셋째 아들 지용훈 넷째 아들 지광훈 이렇게 네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랐으며 현재 대부분의 자녀들이 출가하여 행복하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해외에서 건축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 하였습니다.

제가 동부교회에서 오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가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하여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한번 맞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세 번 주사를 맞아야 할 만큼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신경통 맥의 혈이 뭉쳐서 온 몸이 냉기가 흐르고 특히 가슴이 차가워서 추운 곳에 있다가 오면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절에도 가보고 여러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였



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막내며느리의 인도로 동부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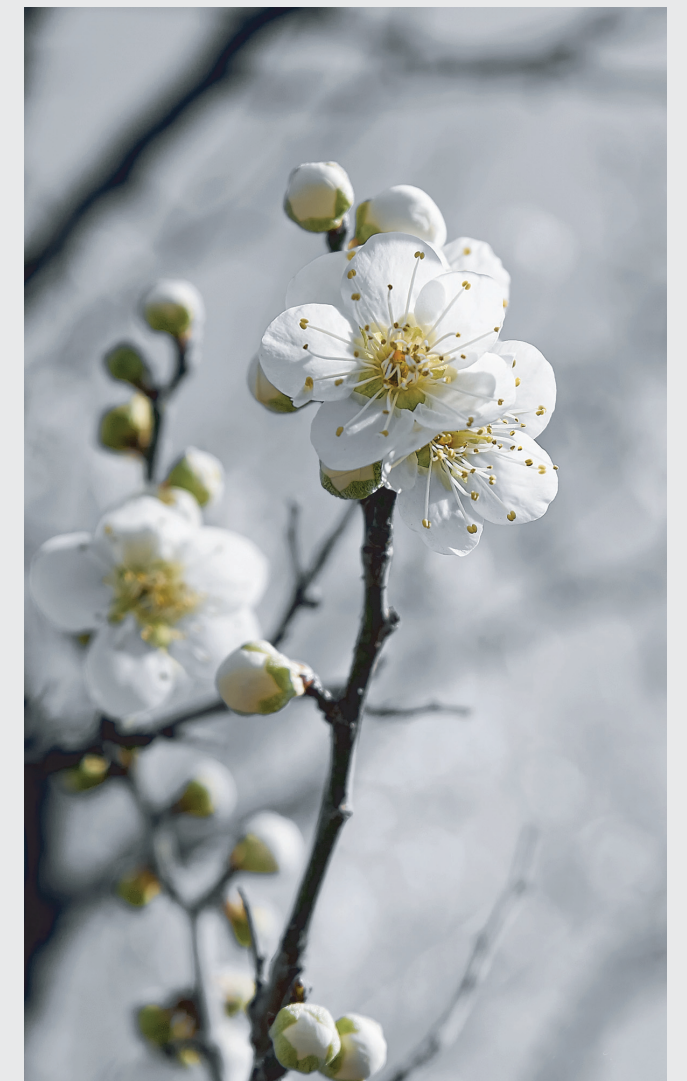
그 후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이지만 주일에 배와 찬양예배 그리고 수요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흥회와 성경통독수련회도 시간이 되면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제 냉 가슴 병이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픔을 아시고 동부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6월에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와 주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서 8월에 등록하여 담임목사님과 새가족 면담을 하고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부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한 권사님의 따스한 손과 품이 저를 더욱 따뜻하게 해주었고 이제는 이 병이 고쳐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족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이야기하니 온 가족들이 놀라고 신기해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글 1교구 김용순 성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샬롬!

저는 2-2 구역 고은영 집사입니다. 꼬맹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닌 교회라서 고은영 '집사' 라고 불리우는 것이 많이 어색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에 간증 원고가 제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민망했지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툰 글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해 천정 엄마 전금순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천정엄마의 척추 전체에 염증이 퍼져서 이 세상에서의 이별을 각오하며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 갑작스럽고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 긴 수술 시간 동안 기다리시며 중보와 회복 기간 내내 맛있는 음식을 해다 주시며 살피시고 돌봐주신 구역장님, 그리고 끊이지 않고 입원실을 방문해 위로하시고 격려해주신 여전도회원분들과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엄마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 고맙스러웠던 그 시간이 도리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맘껏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많이 회복하셔서 지난겨울에 '갈렙 찬양대 성가 연주회'까지 잘 마치고 지금은 수술 이전의 일상을 누리며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교회에 다니시던 큰 이모가 춘천으로 이사 오면서 이모 손에 이끌려 춘천 동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때부터 성가대를 거의 빠지지 않고 노래 실력(?)을 키웠고 중.고등부 임원을 하면서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수련회에 참가해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기도를 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꼭 껴안고 두 손을 마주 잡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며 그 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 OT 때에도 술 한 잔을 안 받고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 했답니다. 그 후 조금 방황하기는 했지만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꼭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 자신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직장을 서울로 옮기면서 다니게 된 회기동의 동안교회에서 난생처음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해 자리가 없어 맨 앞 성가대석에 앉아서 기도하던 중 "은영아, 참 오랜만이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 생각이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 하는 변명과 함께 그동안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보

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 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질투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 이어지는 새벽기도 40일 동안 저 자신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내게 다가오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어깨를 펴시고 등 두들겨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내게 있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율법이 아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적어놓으신 매뉴얼과 격려와 경고, 사랑의 편지로 쓰여진 하나님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주일예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새 힘을 얻는 최소한의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호세아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고벨인 것을 알게 하셨을 때,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숨고 싶었지만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니 그럴 수 없어 못 견딜 것 같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숨이 넘어갈 것처럼 심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 마음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고백을 원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다가와 만나주셨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서울에서 춘천으로 내려와 춘천 동부교회 청년 2부에서 예배를 드리며 지금의 멋진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닮은 멋진 아들을 낳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춘천으로 내려온 것이 개인사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 올해 초 청년2부 부감과 여전도회 에스터 3부 회장이라는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예배조차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떨어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서기가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 "또 오랜만이다 은영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유년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도 6층 유년부실도 잘 찾아가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 핑계를 대기엔 양심에 걸려 자리만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청년2부 수련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맘껏 찬양을 드릴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다음날 4부 예배에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일하실 때 그냥 손잡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부르셨구나'를 고백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올 한해 청년2부에서 지체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도회는 아직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 모이면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용기가 나질 않아 연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곧 용기를 내고 지혜를 구하며 명단에 있는 회원들께 문자부터 보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10절)

3월에 정말 오랜만에 큐티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기억하며 지내기로 한 성경구절을 적어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다시 한 번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껌냥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 위함임을 항상 기억하려고 애쓰고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

글 2교구 고은영 집사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가 요즘 누군가에게 간절히 듣고 싶던 말. 아무 것도 겁내지마. 다 잘 될거야. 괜찮아질거야. 좋아질거야. 하지만 엄마도, 남편도, 의사도 아무도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년 9월 심한 감기몸살을 앓고 난 다음 날 갑작스런 혈뇨를 보고 보통 감기는 아니다 싶어 내원한 대학병원 신장내과. 친정 아빠가 만성신부전을 오래 앓아 왔기에 신장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으나 내게 찾아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기에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가벼운 방광염일거라는 초기 진단과 달리 검사가 거듭 될수록 방광염이 되었다가 약 4개월 만에 조직검사를 통해 사구체신염, 정확히는 자가면역질환인 'IgA신염'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겠어!'라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들렸던 진단명. 하지만 알면 알수록 쉬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초기에 빨리 알게 되어 금방 치료가 될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조직검사 결과는 이미 예전부터 나빠지고 있던 상태로 1기부터 5기 중 저는 4기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치불가, 치료의 목적은 완치가 아니라 신부전으로 가는 시간을 미루거나 최대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약물 치료법들. 철저한 식이조절. 그래야만 투석이나 이식 없이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의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바로 떠오른 건 아빠의 모습. 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이식한 신장의 수명이 다해 다시 시작된 투석. 이틀에 한번은 4시간씩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딸 집에도 한번 못 와보시는 아빠. 심지어 오랜 투석과 합병증으로 폐에 물이 차 지금 3개월째 입원중인데 이게 곧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기에 더 피하고 싶었고 더 두려웠을 테지요.

그렇게 너무나도 평범했던 나의 일상들이 하루아침에 더 이상 일상이 아닌 간절히 원하는 꿈으로 변해버리게 되자 현재의 즐거움이 사라진 저는 끊임없이 과거의 추억만 쫓으며, 괴로워하고 좌절하며 지옥 같은 7개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원망과 분노. '갑자기 내게 왜 이런 병이 찾아온 거지?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내 시간, 내 삶의 여유도 조금씩 누리며 이제야 사람다운 생활을 맛보고 있던 찰나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시는거지?' 사실 그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을 이토록 미워하시나요? 저는 또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벌 주시는 건가요?' 그런 마음이 들자 고쳐달라고, 낮게 해달라는 기도도 절실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도움과 간절함마저 외면하게 되는 모순적인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는 순간들에만 급하게 찾던 하나님. 그리고 발병 이후로 한번도 좋은 결과를 듣지 못하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모든 것이 포기 가 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걸려온 전화 한통. 발신자는 동부교회 최성구 전도사님 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게 되었고 몸이 아파 곧 친정이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 앞으로 교회도 못 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도사님으로 부터 이사를 가기 전 심방을 해주시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심방이라... 어릴 적 구역 예배 때 말고는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없는데 어찌지 라는 생각에 잠시 고민했지만 제 입에서는 "좋아요. 그래주시면 감사하지요." 라는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전도사님과 함께 권사님 두 분이 저희 집을 찾아 주셨고, 좋은 말씀과 기도로 그 동안 얼어붙었던 제 신앙심에 손난로 하나를 쥐어주고 가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날 기도를 해주시는데 눈물은 왜 그렇게 나던지, 왜 내가 그동안 주님을 더 찾지 않았던 건지, 날 위해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이 분들이 왜 이리도 감사하고 든든한지. 마치 어릴 적 수련회에서 찬양하며 통성기도하며 받았던 은혜를 다시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제 마음 속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구나!'

그때부터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도 교회에서 선물로 주신 성경동화를 매일 자기 전 읽어주기 시작했고, 나와 가족들을 위한 진심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쁜 짓도 안하면서 매일 제 건강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조르듯 하던 기도에서 그냥 저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달라고, 더 안좋아 지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 달 시작한 스테로이드치료. 2019년 3월 14일은 그 동안 약이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지요. 너무 빨리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약부작용으로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던 터라 잠을 이루기가 더 힘들었지요. 두근 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자 새벽에 침대에 누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별 것 없었어요. 그냥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 병원 가는 길부터 돌아오는 길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또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흐르길래 그냥 내일 눈이 붓겠구나... 하며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렇게 병원가는 당일 아침. 잠을 5시간도 못 잤지만 다른 날과 달리 컨디션도 좋고 기대를 안해야지 하면서도 내심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되는 날이었어요. 병원을 가기 위해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가는데 또 요동치는 심장! 검사 때문에 금식을 해서인지 극도의 긴장감 때문인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아 그날따라 잘 듣지도 않는 CCM을 유튜브 플레이 리스트에서 아무거나 눌러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어폰 너머 들리는 찬양 첫 구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 듣는 찬송. 제목을 찾아보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였습니다.



'아!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토록 누군가에게서 듣고 싶던 말을 주님께서 찬송을 통해 들려주시는구나.' 버스안이 아니었다면 아마 소리 내 외치고 말았을 순간이었습시다. 찬송을 듣는데 벅차오르는 마음과 감사함. 글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당시의 감정. 은혜 충만함이 바로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하시지요?

발병 이후 약 7개월 만에 받아보는 기적 같은 수치. 모든 항목이 제가 꿈꾸던 수치였어요. 0.1의 작은 수치변화에도 일희일비 하던 저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꿈같은 결과를 이제서야 처음으로 받게 된거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감사함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던 순간이었습시다.

무엇보다 더 감사한 건 스테로이드의 어마어마한 부작용들조차 저는 요리조리 피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페이스, 체중증가, 탈모 등등 제일 걱정 많았던 외형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 의사도 의아해 하시며 정말 잘되었다고 함께 기뻐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구나. 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길로 바로 친정엄마께 전화해 이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평평 우시며 본인도 어제 기도를 드렸는데 니가 또 결과가 좋지 않아 혼자 울며 버스를 타고 돌아가면 어쩌나 싶어 너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


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녀의 기도가 같았지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제게 힘을 주시고 저희 가족에게 희망과 기적을 선물 주셨어요. 사실 엄마도 한동안 신앙생활을 멈추셨다가 이번에 제가 아프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어찌 보면 저희 가족들 모두 길 잃고 방황하던 시기를 지나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어린양인 셈이죠.

이렇게 되고 보니 주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도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과 고통을 주시고 다시 내게 빛을 보여주시는구나. 주님의 큰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또 몰려오는 감사함.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보지 않겠냐는 전도사님의 물음에 바로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쓰면 은혜의 글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은혜를 받고 있는 기분이 들어 참 좋았다 싶어요.

아쉽게도 4월 중순이면 춘천과 춘천동부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좋은 추억하나 남기고 갈 수 있어 감사드리며 가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문을 두지 않고, 사랑과 선하심이 영원히 우리 가족과 함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려합니다. 더불어 저 때문에 개종한 남편과 이 교회에서 세례 받은 우리 아들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누군가가 날 위해 해주는 기도가 요즘 참 감사하고 절실합니다. 마치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자고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 머리맡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의 기도 같거든요. 사랑받고 있구나! 아낌 받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길 제가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주안에서 행복하세요. 

글 3교구 조아라 성도

고난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교회 다니시는 외할아버지와 이모들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선교단체 활동을 하며 힘들지만 훈련을 받으려고 애썼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시다. 결혼 후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아이 출산 후에는 남편 직장을 따라 서울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춘천으로 이사했습니다.

2015년 7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외로운 독박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 엄마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구처럼 위로를 받았

는데 알고 보니 이단이었습니다. 그 충격에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매주 구역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구역식구들과 교제하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2017년 영아부와 아기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도사님의 권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아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가을 생각지도 못했던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제게 암 진단은 충격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기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의 마음도 생겼습시다. 자가진단으로 초기에 발견했으나 조직검사결과 삼중음성이라는 악성 유방암 진단에 또 한 번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4살인 딸을 두고 죽는 건 아닌지 너무 두려웠습시다. 가족과 교회식구들의 권유로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예정은 8번의 항암치료 후 수술이었습시다. 암의 크기를 최대한 줄인 후 수술하는 계획이었습시다. 항암주사 직후에는 암이 작아졌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조금씩 원래 크기로 커지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6차 항암치료 후에는 원래 크기보다 더 커져 바로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전까지 만해도 제발 항암만으로 암이 없어지기를 얼마나 기대하며 기도했는지 모릅시다. 그런데 수술이라니..., 갑작스러운 소식에 또 절망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12일 오전 수술이 예정되고 전 날 밤 친정 부모님과 병실에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처음 경험하는 수술 앞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까지 뜯은 눈으로 지새다가 말씀 읽고 드디어 눈을 좀 붙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기도를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딸을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시던 어머니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어 눈을 떴는데 큰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수술 하는 동안과 그날 새벽기도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을 뛰어다니다가 잠이 깬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매일 서울로 20여일 다녔는데 몸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방사선 치료 마지막 날 병원을 나와 지하 철역으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바라보니 하트 구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치료로 고생한 저에게 하나님이 수고했다며 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춘천과 서울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5월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육체적 피곤으로 버스 안에서는 거의 잠을 잤지만, 봄을 좋아하는 제게 아름다운 봄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항암, 수술, 방사선치료 등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항암 후에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만 겨우 먹고 거의 잠만 잤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암 중에도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고 틈틈이 노트에 감사제목도 적었는데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사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속이 메스꺼리지 않고 음식의 맛을 충분히 느끼며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음도 감사, 힘들고 하기 싫었던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 주심도 감사, 아이 옆에서 함께 놀아줄 수 있음도 감



사. 특별히 항암 중인 저를 돌봐 주기위해 오신 믿지 않는 부모님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2017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도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건강과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항암 중 불쑥불쑥 지나간 과거의 나의 죄 된 생각과 행동들을 하나씩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주 작은 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특별히 새벽기도회 시간을 통해 회개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의 견고한 진과 같은 불순물들을 없애고 더 정결한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기 원하셨던 주님. 고난 없는 편안함보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단이 제게 얼마나 큰 유익이며 축복인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간 시간을 통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은 언제 가는 끝이 나며 그 끝에 이르렀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함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말씀으로 매일매일 힘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분들의 사랑의 기도와 격려, 위로를 받으며 저는 참 사랑받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

죽음과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교구 4구역 이 리우입니다. 먼저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해 주시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김 한호 담임 목사님, 오고 가는 길에 저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장로님들과 중보기도로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권사님들, 한결같은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5교구 4구역 식구들과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도를 해 주시는 동부교회 가족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제 이야기를 하셨으나 아직 완쾌 된 것이 아니고 투병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 망설여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원 당시 기도 중에 성령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리이기에 담임 목사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2017년 9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다음 달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수술할 수 있다는

습니다. 안수기도와 병원 심방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해주신 교구 목사님, 구역장님을 비롯한 구역 식구들, 영아부 전도사님을 비롯한 영아부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제가 받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생 동안 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 나를 새롭게 만드시며 순간순간 환경을 뛰어넘는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동행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

글 4교구 박주영 성도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위로할 정도로 병세가 깊었습니다. 대장에 7cm 크기의 종양과 간에 콩알만 한 크기의 세 곳 또 3cm크기의 두 곳 등 다섯 곳에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장은 절제 하고 간에 전이된 세 곳은 고주파 시술을, 큰 것 두 곳은 절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원 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제 아내에게 응원의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십일 동안 성경 신,구약을 일독을 마치고 수술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마취로 통증을 느끼지 못 했는데 시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오한이 나고 열이 오르면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실로 이동 중에 아들이 주무르고 마사지를 계속 해 주었음에도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일반주사를 맞는 정도로 통증이 없었습니다. 숨을 들여 마신 후 멈추자 "찾았다. 완벽하게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날은 이동 중에도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날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받은 시술이라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통증을 없애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 수술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믿고 용기를 가지라'는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불러 주며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

만을 위해 예배를 드려 주심에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찬송을 따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수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정교하게 해주시어 저의 몸에 있는 모든 악성 종양들을 깨끗하게 제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등 위에서' 복음성가를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눈을 떠보니 회복실 이었습니다. 대장 25cm를 잘라내고 간 30%를 절제하고 쓸개를 떼어내는 6시간 동안의 긴 수술 이었습니다. 회복실에는 수술 받은 환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취가 풀어진 후 통증이 없어 병실로 왔지만 그곳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진통제 스위치를 계속 눌렀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장암 판정을 받은 이후로 식구들한테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서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시술은 세 곳 중 두 곳만 했고 한곳은 환부를 찾지 못해 못 했다고 했습니다. 한 곳은 숨을 쉬다가 멈추어야 보인다면 환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취를 하면 환자의 의지대로 할 수 없으니 마취 없이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취를 해도 아팠는데 마취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공포에 점점 힘들어지고 불안 했습니다.

다음날 시술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되고 전날 아팠던 기억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시간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직원이 시간이 없다며 수술실로 빨리 가자고 재촉 합니다. 육신각신 하는 사이에 담임 목사님 내외가 오셔서 상황을 보시자 바로 기도 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받고 시술을 받아야겠다는 저의 바램 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저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담당의사가 마취를 하지 않고 시술할 것이나 아프지만 금방 끝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어제처럼 8cm정도의 큰 바늘을 배에 찔렀습니다. 그런데


평평 쏟아졌습니다. 교만 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 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한참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추면 엄청난 아픔이 시작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고통이 멈췄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이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아픔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를 안타깝게 보고 있던 가족들과 지인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함께 감사의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의 입을 열어 죄를 자복하고 회개 하게 하셔서 그 힘들었던 고통을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퇴원 할 때까지 통증이 없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복강경으로 대장암 수술을 한 환자들도 진통제를 두 세병 사용 하지만 저는 개복을 했음에도 진통제 한 병도 다 못 쓰고 퇴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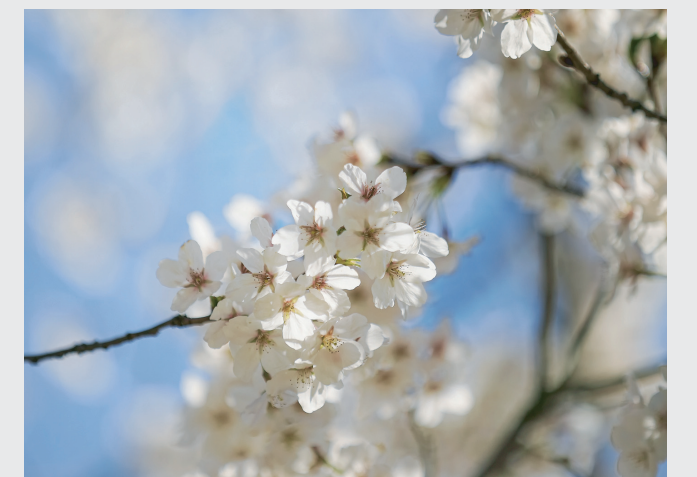
의료진들이 진통제 사용량을 보고 참을성이 대단하다고 놀라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아픔의 고통을 없애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개복한 환자들은 2~3일이 지나야 걷기 운동을 시작하지만 저는 하루도 안 되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는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과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 날 개복 수술한 환자라 많이 아플 텐데 어떻게 아침부터 운동을 할 수 있느냐며 저를 보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아내에게 어떻게 저렇게 빨리 운동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춘천 동부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이라고 했더니 '그 교회 기도밭이 정말 세다'며 감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상 스케줄마다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보여 주시며 투병을 힘들지 않도록 도와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구로 쓰시는 담당 주치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말에도 병원에 들러서 저의 상태를 세심하게 챙기며 퇴원 전까지 하루도 거르

지 않고 보살펴주었습니다. 의료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회복이 빠르고 상태가 좋아서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 보다 이틀이나 빨리 퇴원 했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하는 곳곳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나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도와 줄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잘못을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 다는 것입니다. 제게 병문안을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체험한 이야기를 전하는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12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반 대장암 환자와 달리 간에 표적 치료제를 하나를 더 맞아야 하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의심이 많았으나 이러한 아픔을 통해 하나님과 저의 관계성이 회복되어 감동과 감격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춘천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 하셨다고 믿습니다. 완치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다 할 때까지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글 5교구 이리우 집사





신임교역자 이백석 목사

1) 간단한 자기소개(가족포함)와 약력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의 길이라면 되돌아가지 않는다.'

'행복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복꿈쟁이 이백석목사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눴고, 철학(강릉원주대학교)과 신학(서울장신대학원)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넓혔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인 사람의 복된 삶을 알고자 사회복지학(서울장신대학원)을 전공했습니다.

청교도 교육상을 가지신 부모님께 철저한 신앙의 가르침들을 익혔으며, 다소 형식적이고 경직된 성향들이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백석목사에게는 머리로 알게 되어진 방식이 아닌, 몸에 익숙하여진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누구보다도 예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홀로 세상에서 행복과 희망을 찾아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고 아내 유란과 삼남매 아예, 천낙, 루비, 그리고 알섬공동체(가족)와 함께

참꿈과 참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복과 꿈을 전합니다. 저를 만나는 이마다 세상의 헛된 행복과 희망이 아니라 참복과 참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꿈쟁이 이백석목사의 존재이유입니다.

아내 황유란은 유치원 원감으로 세상을 섬겼으며, 오랫동안 신령한 은사들로 가족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첫째 아예(雅愛)는 아가서의 사랑, 맑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밝고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둘째 천낙(天?)이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활기차고 용감하며 모험심 강한 아이입니다. 막내 루비(婁妃)는 별의 여신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을 웃은 데로 돌아오게 해서 별처럼 빛나고 복된 자가 되라고 지어졌고, 조용하고 끈기있는 아이입니다.

2)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초등2년생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핏덩어리가 그득하다. 확 풍겨오는 피비린내보다는 흐물거리는 모양새가 더 역겨웁

다. 사람 몸에서 나온 이 핏덩어리들도 충격적이지만, 원용선장로님이 만들어내는 기적들은 더 대단하다. 어찌면 원용선장로님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떻게 사람이 귀신과 대화를 하고 쫓아내기도 하며, 미친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들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의 손바닥을 서로 붙게도 하고, 떨어지게도 하지? 그 이상한 말들은 또 뭐야?

엄마가 시켜서 뒤뜰에 핏덩이를 묻고 왔지만, 다시 교회로 들어가기가 두렵다. 웬지 장로님은 내가 저지른 나쁜 일들을 모두 알고만 계실 것 같다. 나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당장이라도 '네 이놈!' 하시며 야단을 치실 것만 같다. 도망갈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냇가로 가서 얼음치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두렵다.

오래지 않아 남동생이 나를 찾아온다. 나를 찾기가 힘들었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장로님께서 우리 삼남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 빨리 같이 가자고 한다. 덜컥 겁부터 난다. 예배당으로 가는 길 내내 절실히 기도한다. '하나님, 제발 장로님한테 제 나쁜 짓들을 알려주지 마세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잘 할게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백석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다행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내 잘못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으신 모양이다.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재빨리 머리를 굴린다. 장로님이 이 정도면, 분명 목사님은 더 대단한 사람이야. 더 멋지고, 더 큰 사람일 거야. 목사님이 되자.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장로님은 빙그레 웃으신다. 주글주글한 얼굴이지만 웬지 눈만큼은 더없이 진하고 깊다.

"네 원대로 되리라."

3) 원하는 목회자 상과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이백석목사는 참복을 전해주는 목사, 참꿈을 이야기하는 목사입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며, 꿈을 꾸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그런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첫째,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펼치셨던 하나님의 꿈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그들과 함께 함으로 전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고 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듯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백성들의 변화가능성의 영역을 가늠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성장이 가능되어지는 희망점에 이르도록 들어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으로 그들을 조금씩 이끌어 옵니다.

셋째, 많은 사람을 웃은 데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목회자고 되고 싶습니다. 웃지 않은 곳에 있어서 복되지 못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을 웃은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들어주고 기다려주며, 결국 웃은 데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복과 참꿈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4) 존경하는 분이나 인생의 멘토가 되었던 분이 있으신가요?

먼저는 부모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를 깨닫게 해주신 멘토이십니다.

철저한 아버지와 올곧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생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들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성실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깨닫게 해주신 중고등부 선생님이자, 이전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십니다. 이성실목사님은 '예배의 가치와 자세'를 전수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가르쳐주시고, 귀에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또 목회자로의 인도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천일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직전 사역교회의 위임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의 목사님이십니다. 나천일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사랑에 대한 선한 깨우침과 깨달음이 깊이 있게 나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인격으로 표현하시고 깨우쳐주신 분입니다.

5) 동부교회를 택하신 이유와 성도와 교회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지금껏 12년간 회사생활과 개인사업을 하였고, 9년간 서울 남석교회를 섬겼으며, 이제는 춘천동부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러하듯 내 마음의 계획보다 내 걸음을 춘천동부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춘천동부교회는 잔잔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전통이 지켜지면서도 새로움이 깃들여 있고, 슬프게 보이면서도 기쁨이 넘실거립니다. 춘천동부교회에서는 4교구와 교육부 총괄, 그리고 미디어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진실, 그리고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분한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꿈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6) 앞으로의 목회 비전과 특별한 목회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나라를 품은 수도공동체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삶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꿈결을 거닐다가 마을 전체에 울리는 종소리에 일어나고, 새벽 미명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 온전히 드리는 주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전교회만 집중합니다. 이 날은 성전에만 머물면서 예배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제하며 성전교회를 섬김... 기도로 계획한 것을 함께 나눈 후 마을로 흩어져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으며, 할 수 있는 일터교회를 섬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모든 일을 정리하고 예배 후, 해질녘이면 각자의 가족과 사랑을 누리며 가정교회를 섬김... 금요일이 되면, 마을 안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 밖의 공동체 일원도 모두 교회로 모여 그동안 섬김이 부족한 가정이나 일터교회를 섬김... 토요일이 되면, 다시 모든 공동체가 모여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매 시각 종소리에 맞춰 시간이 멈추는 마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삶을 누리는 마을, 해가 뜨면 수고하고 해가 지면 쉬는 마을, 가정의 웃음꽃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마을, 가정을 살리는 길을 제시하고 함께하는 마을, 무엇보다 성전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주말을 온전히 구별하는 마을.
이 수도공동체 마을에는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대안유치원과 대안학교가 있어서 전인적인 말씀교육과 삶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양육된 지체들이 또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되는 수도공동체 마을.
이백석목사는 이 나라를 품은 수도공동체 마을을 꿈꿉니다. 

글 이백석 목사



아름다운 곳

문정희

봄이라고 해서 사실은
새로 난 것 한 가지도 없다
어디인가 깊고 먼 곳을 다녀온
모두가 낮익은 작년 것들이다

우리가 날마다 작고 슬픈 밥술에다
쌀을 씻어 행구고 있는 사이
보아라, 죽어서 땅에 떨어진
저 가느다란 풀잎에
푸르고 생생한 기적이 돌아왔다

창백한 고목나무에도
일제히 눈썹 같은 벚꽃들이 피었다
누구의 손이 쓰다듬었을까
어디를 다녀와야 다시 봄이 될까
나도 그곳에 한 번 다녀오고 싶다



습판사진을 찍다

습판사진을 찍게 되었다.

막내아들은 좀 독특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찾아내곤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습판사진이었다. 옛날 사진찍기라며 가보자 하여 용산에 있는 등대사진관을 찾아갔다.

예전에 알았더라면 아들의 고교시절에 고고학 같은 학문을 하도록 조언을 하거나 권유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막내아들도 수긍했다. 자식에 대해서 살피지 못했던 미안함과, 내가 만든 틀에 아들의 삶을 끼워 맞추고 그저 세태에 따라, 컴퓨터학이 좋으려니 했던 내가 속으로 많이 부끄럽고 미안함에 마음이 아프다.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기가 어찌 인생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라. 나는 또 쉽게 생각하고 만다. 이제 와서 어떡하랴 싶어서

고 다 저희 좋으라고 했지 라며 변명이랍시고 미안함을 외면한다.

용산 도심 한가운데에서 기차가 지나 갈 때면 팔랑 팔랑 종이 울리는 기차철로를 지나 골목 속의 등대사진관을 찾아 갔을 때 사진관 사장님은 우리앞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권했다.

습판사진을 찍기까지 준비 시간이 길어 사장님은 우리에게 커피를 권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건넨다. 물론 습판 사진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다. 한 시간여를 그렇게 이야기 나눈 후 사진을 찍었다. 어릴 적 사진 찍으려면 참 힘들었었다.

아코디언 같은 주름진 사진기 속에서 검은 보를 뒤집어 쓴 사진사가 나를 향해 고개를 좀 숙이고 이쪽으로 살짝 턱을 좀 들고...

그때처럼 사진찍기를 마쳤다. 그리고 30여분을 사

진이 나오는 과정을 보여 준 후 사진은 이튿날 나온다는 거였고 우리는 사진관을 떠났다. 150년 전 사진 찍는 방법이라 했다.

사진은 단 한 장만 우리 손에 남는다. 요즘 사진을 찍으면 같은 사진 인화가 수천 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습판사진은 오로지 철판 한 장에 찍힌 것만이 유일하다. 두 사람이 찍어도 둘이 나눠 간직할 수가 없다. 가족이 찍어도 나눠 가질 수가 없어 대표로 누군가 한 사람이 간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진은 요즘처럼 포토샵으로 수정을 할 수가 없다.

한 번 찍으려면 1시간 가까운 준비과정과 비싼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찍어 이튿날 확인한 사진은 내 마음대로 예쁘게 찍히지도 않아 사진을 보는 순간 실망이 더 크지만 보여주는 사진이라기보다 찍는 그 시간의 나를 간직하는 사진이기에 이게 바로 나구나 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사진은 칙칙하고 흐릿하고 검다. "움직이지 마세요" 사진사 앞에서 눈도 깜박이지 못하고 안면 마비를 일으킬 만큼 긴장한 탓에 당연히 표정도 엉거주춤 어둡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디지털처럼 연속적으로 다시 찍을 수 없다.

나는 인생이 습판사진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한 번의 일회성.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찍는 순간 과거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 내 모습에 아무도 함께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 등등.

인생이 어찌 보이는 부분만인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닌 것. 인생은 보이거나 또는 보이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이기 위한 삶은 포장하여 자기를 자기대로 살지 못하고 가면 속에 가둘 수도 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남의 말에 좌우되며 남을 자기 잣대로 재며 세상의 나로 산다면 행복할지. 습판사진에 찍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나의 인생 70년이 마음에 들지 않은 지도 모르겠다.

사진은 순간을 그대로 정지시킬 터였다. 마음도 생명도 풍경도 진전도 없다.

사진이 나오기까지 상상은 아름답다.

사진에 대한 기대는 하루 동안 행복했다.

사진의 내가 재미있게 또는 보기좋게 나올거라 상상했다. "좋아요!"라는 사인과 함께 사진찍기를 마쳤으므로.

언젠가 나는 나뭇가지에 걸린 풍선 쓰레기가 꽃인 줄 알고 탄성을 지른 적이 있었다. 그러다 가까이 가서야 비닐쓰레기인줄 알고 혼자 무참하였다. 상상과 현실의 차이였다.

습판사진을 보고 불만스런 내게 난 부끄럽다.

왜 나는 사진이 멋지기를 상상하고 바랬을까.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정직한 사진보다 꾸며진 거짓에 더 만족하는 것일까.

뒤로 끌어당길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내 앞에 펼쳐져도 언제든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그 땐 이랬었어' 라고 과거를 자랑삼지 않고 지나간 사진과 현재 삶의 결과가 동일했으면 싶고, 마음에 칼끝이 스치듯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지된 사진이 마술처럼 기지개를 켜고 4월의 봄처럼 되살아 날 때 피어나는 꽃처럼 풍성했으면 참 좋겠다. 지금 내 삶은 습판 사진을 찍는 중, 난 습판사진이 언제나 감동이기를 기도한다. 🌱



글 임양숙 권사

車 '차'를 이해하고 車 '차'를 사랑하는 車 '차'별화된 운전자

자동차!
매년 엄청난 사상자를 내는 애물단지,
그러나 처음 사회에 나간 초년생들이
가장 사고 싶은 애마(愛馬).
어떤 이에게는 단순한 소모품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소중한 추억인 이 녀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묘한 대형 SUV 전성시대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 SUV 시장의 급성장입니다. 사실 세단의 시대가 저물고 SUV가 대세가 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저출산의 흐름 속에 가족 구성원의 수가 단출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선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가볍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1. 멸종됐던 공룡이 부활했다.

"엥? 무슨 공룡?"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최근 대형 SUV 붐을 극대화시킨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광고에서는 공룡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공룡처럼 최대 7명의 탑승인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형 패밀리 SUV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형 SUV 시장은 멸종되어갔던 공룡과 진배없었



팰리세이드의 광고
이 차량의 컨셉인 '공간활용성'을 효과적으로 묘사했다.

습니다. 쌍용의 렉스턴이나 기아의 모하비, 현대의 베라크루즈와 같은 희대의 명차들이 나왔던 시장이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체급의 SUV 시장에 비해서는 판매 불륨이 턱 없이 작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2. 멸종과 부활의 원인은 동일하다?

사실 4인 정도의 승차환경이라면, 준중형~중형 SUV의 차체 특성상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굳이 주차공간도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비싼 돈을 주고 큰 차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사업 목적의 법인이나 대가족의 수요는 기아의 미니밴 '카니발'이라는 훌륭한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더욱 구입의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SUV의 멸종 원인에는 '여백'이 숨어있었습니다. 역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카니발'이 갖지 못한 유려한 디자인과 주행성능을 가진다면, 단순히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작은 '빈틈'을 제조사들은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 가성비가 가심비까지 잡다!

먼저 부활의 신호탄을 쏜 것은 쌍용의 'G4 렉스턴'입니다. 노후화된 기아 '모하비'와 비싼 가격과 불편한 AS를 감수해야 하는 수입차들밖에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에서, 빼어난 가성비와 프레임바디의 감성을 바탕으로 높은 판매량을 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확대가 되자, 현대자동차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모노코크 바디의 빼어난 승차감과 편의사양을 두른 '팰리세이드'를 출시하며, 심지어 중형 SUV 수요자들까지 뺏어오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롭게 버티고 있었던, 기아의 '모하비'
2008년에 처음 출시돼, 12년간 모델체인지 없이 수명을 연장해온 노장이다. 그동안 얼마나 대형 SUV 시장이 찬밥이었던지를 잘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공룡 부활의 서막, 쌍용의 'G4 렉스턴'
'티볼리'를 통해 소형 SUV 르네상스를 열었던, 쌍용이 이번에는 대형 SUV 부활도 견인하며 '트렌디 세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

4. 공룡들의 춘추전국시대 도래?

이 핫한 시장에 다른 제조사들도 속속 참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팰리세이드'는 계약을 해도 8개월



올해 출시 예정인 '트래버스(위)'와 텔루라이드(아래)

이상을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원래는 국내 판매 계획이 없었던, 팰리세이드의 형제차인 기아의 '텔루라이드'도 올해 출시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들여올까 아닐까..로 소비자들과 밀당(?)하던 GM의 '트래버스'도 수입확정이 되었고, 기존의 강자였던 포드의 '익스플로러'도 신형으로 올해 나온다고 하니 바야흐로 공룡들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공룡이 포식자로 올라갈지 지켜보는 것도 올해의 자동차 업계의 흥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

글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황유성 (청년 2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중 · 고등학생 시절, 교회학교 임직원으로서 주말이면 교회에 나와 찬양 연습을 하고 QT모임을 하였습니다. 임직원으로 봉사하는 친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각자의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토요일 모임을 마치고 곧바로 당구장, PC방, 오락실에 몰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친구들이 어느 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뜨겁게 기도를 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고등부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마음을 바로잡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눈에 띄게 성적이 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결정했고, 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내심 안

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고등부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주일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던 낯선 친구를 앞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릴 적엔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청년으로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누가 보아도 성공하고 유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계획과는 다르게 제 삶을 이끄셨고, 이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분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회에 나와 첫 직장을 그만둔 후, 선교의 비전으로 세워진 한 어학원을 도와 잠시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긴 업무시간에 체력적으로 소진된 것이 문제였을까요. 일 년이 안 되어 일에 지쳐버렸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보다는 곡소리에 가까운 기도가 나올 때 즈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라는 저 자신에 대한 질문들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된 설교 말씀에서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말씀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후략)

처음에는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라기보다 내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적용되는 점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는구나(로 10:17)',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구나(야 2:17)',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에 띄는 선행과 봉사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생전에 큰댁에 갔다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항상 같은 말씀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유성아,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해." 요즘 들어 그 말씀이 제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

글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방글라데시
디아코니아 장년 해외선교

일시 : 17일(주일) ~ 22일(금)
장소 : 방글라데시 다카, 사바, 깔리아골 지역





1. 집사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교구 김면이 집사입니다.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부교회에는 가족과 함께 2012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와 디아코니아의 영적 매력에 흠뻑 빠져 행복한 신앙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찬양을 좋아해서 여호수아, 브니엘 찬양대 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서 가족 모두(남편인 양승국 집사, 지혜, 준모) 초등부 선생으로 섬기고 있으며, 디아코니아 사역으로는 실로암학교와 디아코니아학교 지원팀, 군선교를 맡고 있습니다.

2. 금번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참석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으셨나요?

2017년 디아코니아 장년 해외선교로 중국을 가게 되었는데 사실 너무 가고 싶었지만 바쁜 직장 일로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해외선교 대신 국내인 '음성 꽃동네'를 가게 되었는데 이때는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와서

그리고 올해 해외선교가 방글라데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이번에는 꼭 참여하리라'는 굳은 다짐을 가지고 만사를 제쳐두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5박 6일 선교기간 동안 사역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인천공항으로 출발해서 꼬박 10시간이 걸려 방글라데시 다카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 하자마자 덥고, 습한 기운이 피부를 휘감더니 뽕뽕한 모기떼가 우리를 열렬히 환영 하였고 일정내내 우리의 적 이었습니다.

먼저 기억나는 것은 첫 사역지인 깔리아폴 초등학교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반 실신할 뻔한 일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도로에 신호등이 거의 없으며 역주행은 물론이고, 거의 곡예로 운전하는 차들이 대부분이어서 생명을 내놓고 차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는 시골길을 밤새 달려 새벽 4시쯤에야 깔리아폴 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4시간의 짧은 잠을 잔 후 드디어 예쁘고, 순수한 눈을 가진 어린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오전 학생들과 함께 한국전통놀이 및 신나는 물총놀이, 미용 봉사, 체력검사를 한 후에 목욕봉사를 하였습니다. 옷들도 허름하고 때가 잔뜩 묻어 있어 목욕 후에 그 옷을 다시 입히기가 곤란했는데 선물로 새 교복을 입혀주게 되어 학생이나 봉사하는 우리들도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학생들의 가정을 4개 조로 나뉘어 심방하게 되었는데 집집마다 시골길을 한참이나 걸어 다다른 집들은 대부분이 작은 움막 하나에 화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환경이었지만 어느 집이든 마당에 들어서면 어디에서 꺼내오는지 플라스틱 의자를 사람 숫자대로 주욱 펼쳐놓고 앉도록 권유하며 환한 웃음과 반가움으로 맞이해주었고, 없는 살림이지만 하나라도 더 대접하고 싶어 그 나라에선 귀한 물을 꺼내오고, 과자이며 차까지 대접해 주었습니다. 가정심방

내내 섬김을 실천하러 갔다가 도리어 섬김을 받고 오는 묘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이었습니다.

선교 둘째 날에는 깔리아폴 현지부모 초청 프로그램 및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중 네일아트를 맡게 되었는데 소질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하여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작은 손톱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쁘게 색칠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여리고 가는 손가락을 활짝 펴서 메니큐어를 바른 손톱을 자랑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기운이 저절로 났고, '잘했구나'라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준비해간 공연을 보여주었고, 그 곳 학생들의 전통춤 등 몇 가지의 공연을 관람한 후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준비해 간 한복차림은 단연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 날 저녁 우리는 그곳을 떠나 사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셋째 날에는 사바에 있는 GSIS국제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진행 및 세족식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전에는 전날처럼 팀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섬김의 시간인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데 평생 기억에 남을 눈물의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나머지 인원들은 물을 떠다 나르는 등 보조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기다리면서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과 발을 물에 담글 때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심이 느껴져 눈물을 펄펄 흘리며 그들을 위한 진심어린 기도를 큰소리로 목청껏 드렸습니다.

이러한 뜨거움이 다음 순서인 예배에서까지 이어져서령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시간에서 특별했던 일은 학생들의 일률적인 박수소리와 함께 기도할 때 전원이 무릎꿇기, 말씀 암송하기 등 성인들도 따라 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종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용사를 배출시키기 위해 훈련을 시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예배였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에는 다카에 위치한 알로키토 미션학교 및 모자보건센터를 방문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미션학교에서 선교사님의 학교운영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실을 둘러 보았으며 그 부근에 위치한 모자보건센터에는 커다랗고, 해맑은 눈을가진 어린 아이들이 작은 방에서 올망졸망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말라서 내 무릎에도 3명의 아이는 족히 앉힐 수가 있었는데, 센터는 일명 탁아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환경은 많이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 가여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눈높이를 맞추어 웃어주고, 말을 건네주니 아이들이 어느새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이후 선교사님 댁에서 선교마감 예배를 드리고, 늦은 밤 다카공항을 출국하여 3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 경에 다시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4. 끝으로 다음 해외선교 기회를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말보단 은혜로운 찬양인 '밀알'의 가사로 이를 대신하고 싶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 단위에드리리. 주 영광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해 이리저리 헤메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다음 해외선교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이 마음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선교 일정내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큰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글 김면이 집사



의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10시간쯤 날아 안착한 방글라데시 땅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비포장 길을 달리니 아담한 교회와 학교가 나타났습니다. 내 생애 첫 해외선교지 '깔리아폴' 마을, 이슬람이 판치는 이곳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영식 장로님 부부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물질과 온몸을 바쳐 묵묵히 복음의 빛을 갠고 계신 장로님 부부. '내가 안일하게 하루

하루 일상을 보내던 그 시간에도 이 먼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겨가며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섬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와 떨림 속에 학교 학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장 처음 드린 섬김은 목욕과 미용이었습니다. 속옷도 안 입은 몸을 씻기고, 머리를 깎은 후, 선교사님이 준비한 깨끗한 교복으로 학생들의 옷을 갈아 입히자 뿔 듯이 좋아하던 아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이들의 가정을 하나하나 방문하여 심방하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선물을 내밀자 너무 좋아하던 어른들, 아이들, 가는 가정 가정마다 없는 살림에도, 가랑잎을 태워 차를 끓여오고, 마당의 대추나무를 흔들어 무엇이라도 대접하려 애쓰던 순수한 마음들을 받으며, 은혜를 끼치러 왔다고 도리어 은혜요, 기쁨을 크게 얻게 된 순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수줍은 얼굴에 동그란 눈망울을 가진 영혼들과 함께 스크래치, 풍선아트, 전통놀이, 예쁜 부채 만들기, 스포츠, 페이스페인팅 등의 섬김사역을 진행했고 한쪽에선 팝콘을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선 즉석카메라로 가족사진을 찍어 액자에 넣어주었는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내게 와 수줍게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행복해하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부채 스티커로 예쁘게 꾸미기입니다. 처음엔 학생들만 하던 수업에 어느덧 학부모인 어른들까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은 너무도 감동이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전도와 선교란 '누가 시키고 강요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쳐 폭발해서 하는 것'이라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됨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선교지인 사바지지역은 올 81세 되신 여선교사님이 GSIS 국제학교와 교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20년만 젊게 해달라.'매일을 기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아 니나 다름까 정말 겉모습은 60남짓으로 보이셨습니다. 건강과 열정은 청년 못지않으셨습니다. 현지 초중고 학생 100여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학생들의 힘찬 박수와 찬양 소리는 저에게 큰 도전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 밖에서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하루에 네 번씩 기도 드린다는 명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곳곳하고 담대하게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선교사님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도 준비한 섬김을 진행했지만 모든 사역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는 섬김의 시간인 '세족식'이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새까맣고 투박한 발, 하지만 귀한 학생들의 발을 씻기며, 어루만지며 "이 발이 이슬람이 창궐한 방글라데시를 복음화시키고 이 아이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섬김을 마치고 가진 감사의 시간, 각

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었기에 그저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 같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대원 모두는 오히려 받은 것이 준 것 보다 많은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날은 알로키토 지역의 미션학교와 모자보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아동들을 공부시키고 부모의 맞벌이 때문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는 곳이었습니다. 표정 없이 커다란 눈만 깜빡이던 어린 영혼들, 한 사람씩 안아주니 품 안에 속 안겨 떠날 줄 모르던 사랑에 고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로하려니 미안하고 안타까워 마음이 많이 쓰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6월 간의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져왔던 가방은 텅텅 비었지만, 마음엔 받은 기쁨과 행복, 은혜로 가득 넘치는 모두였습니다. 감옥에 가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사실 한국에 있을 땐 화장 안 한 민얼굴이나 머리 손질을 못한 상태론 절대 외출을 하지 않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선교 일정 동안 머리를 감지 않고 다녀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그들의 영혼만 내 눈에 들어온 하루하루였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마음 깊이 느낀 하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심과 구원의 손길은 한국 사람에게나 이역만리 방글라데시의 검은 피부 사람에게나 동일하였습니다.

지금도 내가 모르는 지구의 어느 작은 마음에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내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또 다른 의미를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들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한 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글 한옥레 권사

온 세상을 품고 계신 하나님

2013년 동부교회의 가족이 된 저는, 새신자 신분으로 디아코니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16살에 주님을 영접한 후 45년 동안 나름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였다 자부하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디아코니아 교육은 저에게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 특히 '섬김의 도'를 알게 하였고,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출발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립니다.

금 번 방글라데시 선교는 저에게 주님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해외에서 실천하는 기대로 가슴 뛰게 하였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기로 작정한 날부터 내 마음은 이미 방글라데시로 향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3월 17일 주일, 담임목사님의 인솔하에 우리 20명의 선교팀은 방글라데시 다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들뜨고 신나는 마음으로 떠나곤 했던 그동안의 해외여행과는 달리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조급한 마음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삶은 여유롭고 즐겁다

춘천시 동면 갤러리 카페 '느린 시간'

3월은 마음만큼 쉬이 추위를 내버리지 못했다. 그들이 오래 머문 곳마다 살얼음이 졌다. 빈 하늘로 목화솜 같은 구름이 기웃거렸다. 커피 한 잔의 온기로도 따스함이 전해졌다. 눈사람이 있던 자리를 봄을 예견하는 전시물이 대신했다. 박미숙 대표가 운영하는 갤러리 카페 '느린 시간(춘천시 동면)'은 예술인들의 사랑방이다. 2016년 10월 오픈 후 예술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명소가 됐다. 예술인들에게 전시관이고 손님들에게 친밀하게 예술품을 감상하는 공간이다.



실내는 노출 콘크리트를 그대로 살려 별도의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다. 장르와 작가가 겹치지 않게 기획한다. 올해 전시계획은 지난해 말 다 잡혔다.

카페에서 청소년 대상의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북클럽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일. 매주 토요일 8명의 중학생들이 참여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독서지도와 멘토를 겸해 청소년들과 만난다. "책은 수 천 년 동안 인류의 지혜가 담겨있다. 청소년기의 독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집, 학교와 학원 등 청소년들의 독서환경이 제한적이라 색다른 장소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다." 일주일에 한 번 '뜨개·코바늘 강습'도 열린다. 재능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과의 교류공간이다. 그곳에선 뭔가 작지만 생산적인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전시회뿐 아니라 창작곡악 공연, 재즈, 리코더 연주 등 하우스 콘서트가 열려 관객들과 만난다. 박 대표는 "영세한 변두리 카페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화를 이어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곳에서 어려운 예술인들의 창조적 기운을 일반인들도 누리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향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과 간접체험으로 삶이 더 풍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녀가 카페를 전시공간으로 만든 이유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다.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전시장의 문턱은 너무 높다. 전문가에게만 전시기회가 오고 일반인들에게 감상의 기회도 적다. 일부러 찾아가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전시공간이 필요한 무명작가들에게도 열려있다. 전시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누구나 수준 높은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카페 안팎의 시간이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에서 한 발 비껴서면 작고 느린 일상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느림은 기다림이다.



그녀에게 '느림'은 어떤 의미일까? "강물은 빠르게 흐르지만 강바닥의 유속은 더디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삶은 여유롭고 즐겁다." 문을 나서자 4월초 리코더 독주회를 알리는 포스터가 눈에 띈다. 무르익는 봄밤, 연주자의 깊은 숨을 따라 울려 퍼질 연주가 기다려진다. 🎵

좋은 사람들,
음악과 커피
오래 꿈꾸어 온
인생 2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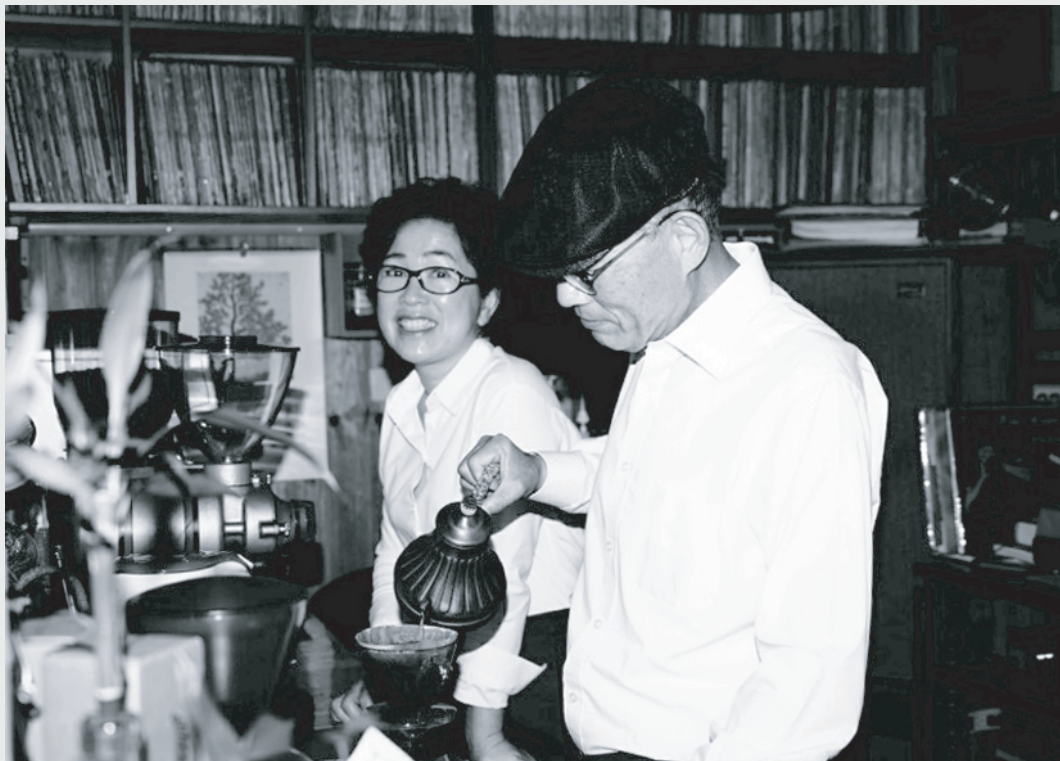
춘천시 동면 카페 씨·엘(C·L)



말끔하게 다려 입은 흰 와이셔츠와 단정하게 눌러 쓴 헌 텀캡, 검은 머리칼 사이로 드물에 흰머리가 눈에 띈다. 소녀 처럼 활짝 웃는 아내 역시 커플 셔츠를 입고 실내를 오간다. 춘천시 동면 소양강변에 그림처럼 아늑한 카페 씨·엘(Coffee & Lp)을 운영하는 이종진(64), 정명숙(62)씨 부부다. 넓은 창으로 소양강이 가득 들어왔다. 여행길에서 만난 통영 바닷가의 작은 커피숍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음악에 묻혀 커피를 내리고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은 오래 꿈꾸어 온 퇴직 후 자신의 모습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보았던 소양강변의 2층 목조건물은 오랫동안 닫혀있었다. 건물 뒤로 송림이 우거져 있고 작은 정원에 아무렇게나 자란 꽃들이 연료를 더했다. 차량만 오갈 뿐 인적이 드문 곳이라 아늑하고 고요했다. 그는 서울로 다니며 바리스타 공부를 했다. 직접 커피콩을 볶아 뽑아 내는 드립커피에 자부심을 갖는다.



어려서부터 수집해 온 LP레코드를 가져다 났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실내장식이 됐다. 1만 여장의 소장 레코드 중 일부다. 카페에 흐르는 음악은 60~70년대 국내외 대중음악과 클래식. "입맛 변하듯 음악적 취향도 변하지만 오래 들

어도 싫증 나지 않는 음악은 클래식이다." 그가 소장한 희귀 음반을 듣기 위해 카페를 찾는 이들도 많다. 이 대표는 "LP 레코드를 싱싱한 생선회에 비유한다면 CD는 냉동 회, MP3를 건어물에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LP가 그만큼 인간적이고 건강한 음원이다. 좋은 오디오를 갖겠다는 욕심은 버렸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너른 창으로 매일 조금씩 자라는 풀과 나무, 4계절이 한눈에 들어온다. 반가운 얼굴들과 마주해 나누는 얘기들이 좋아 문을 열고 3년 동안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 손님이 없는 날엔 데이트하듯 아내와 차를 나누고 깊어가는 계절과 만났다. "문을 열고 3년 동안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 힘든 줄 모르고 지낼 만큼 행복했다."

3년 쯤 지나니 지나가던 길에 들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갈 곳이 마땅찮은 동기들의 사랑방 노릇도 했다." 카페를 찾는 연령층은 다양하다. 공직생활을 함께한 동년배들과 만남이 이어진다. 세대를 공감하는 음악이 있고 전문가가 만들어 주는 커피가 있어서다. 이 대표가 '아내의 와플 굽는 솜씨가 일품'이라고 귀띔했다. 바삭하게 구워진 와플에 아이스크림과 잼을 듬뿍 올렸다.

그윽한 커피 한 잔에 곁들인 와플은 얼마나 우아한지... 자전거로 봄 강변을 달리다가 들러도 좋

겠다. 음악을 들으며 까맣게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마치랑이처럼 피어오를지도. 📺



지난 겨울 춘천시 동면에 위치한 옛 옥미관 자리에 사진 스튜디오 카페 <예와생>이 오픈 했다. 몇 해를 빈 건물로 방치됐던 중화요리 건물이 예술을 꿈꾸며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는 저마다의 예술을 꿈꾼다. 서양화가에서 다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빠와 시인 아내, 아빠의 길을 따라 사진과 영상을 전공한 아들 그리고 불문학을 전공한 딸과 함께 가족이 의기투합한 결과물이 예와생이다. 아빠와 아들은 1층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 및 인화와 원하는 분들에게는 작은 강좌도 운영한다. 엄마와 딸은 커피향 가득한 2층 카페를 책임지고 있다. 불문학을 전공한 딸은 지금도 열심히 베이커리 수업을 받아가며 제 몫을 다 하고 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무렵 만만하게 보았던 실내공사는 철거서부터 난관에 부딪혔고, 끊긴 전기시설과 상하수도 시설부터 새롭게 정비한 후 비워진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 가족회의를 통해 1층과 2층을 어떻게 활

용할 것인지 그리고 3층 주차공간까지 철저히 가족의 의견을 반영했다.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

스튜디오 카페를 준비하며 특히 고심 하였던 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염려였다.

예술은 무겁고 심오한 것이며 특정 작가들의 산물이라 여김이 보편적 인식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이미지를 벗겨내어 쉽게 접근 하고 즐기며 삶의 일부로 느낄 수 있는 참여 예술 카페를 만들어 보고자 의도했다. 예와생은 가족, 커플, 우정, 프로필 혹은 단체사진 등을 촬영하는 1층 스튜디오가 있으며, 또한 카페 안 팍 곳곳에 마련된 여러 셀프 포토존을 이용하여 맘껏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예와생을 구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공간이다. 주말이면 많은 방문객으로 테이블이 모자라지만 예와생은 비교적 넓은 공간을 셀프 포토존으로 손님들에게 양보했다. 예술은 함께해야 비로소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며, 예술은 즐기는 문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곳은 사진인들 뿐만이 아니라 시인, 수필가, 화가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찾아 온다. 그리고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서로의 예술을 이야기 하고, 서로의 작품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춘천의 예술인들의 메카로 자리하고 있다.

예와생.

예술과 삶의 줄임말이다. 예술이 인생이고 인생이 예술이

다. 그리고 삶의 일부이며 생활 자체가 예술인 요즘이다. 하여 예와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 혹은 그 어떠한 예술을 즐기고 참여하며 삶을 영유해 나가더라도 포용 할 수 있는 춘천의 명소. 그 중심에 예와생이 환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바로 예와생의 푸른 소망이다. 🌱



털신


땃돌위에 내려앉는 햇살이 따스해졌다. 털신을 넣어도 되겠다. 겨우내 눈 쌓인 마당을 밟고 눈을 쓸어낸 신발 뒤축이 비스듬히 주저앉았다. 통 밖에 나오실 일이 없던 아버지의 털신이다. 돌아가시던 그 해에는 걷지를 못하셔서 신발이 닳을 사이가 없었다. 아버지가 떠나셨어도 털신은 남은 가족의 발을 보듬었다. 신발이 어머니 발에는 험겁고 내 발엔 짝 끼어서 바쁘게 마당을 오갈 때는 아무나 신었다. 낡은 신발 한 켤레도 갖고 가시지 못한 아버지를 향했던 애잔함도 닳아지는 밑창처럼 조금씩 잊혀졌다. 괜찮아지려니, 기다리다가 밥 한 끼도 제대로 못해 드려 안쓰럽던 마음도 애써 쫓아버렸다. 날이 풀려서 더는 털신을 신을 일이 없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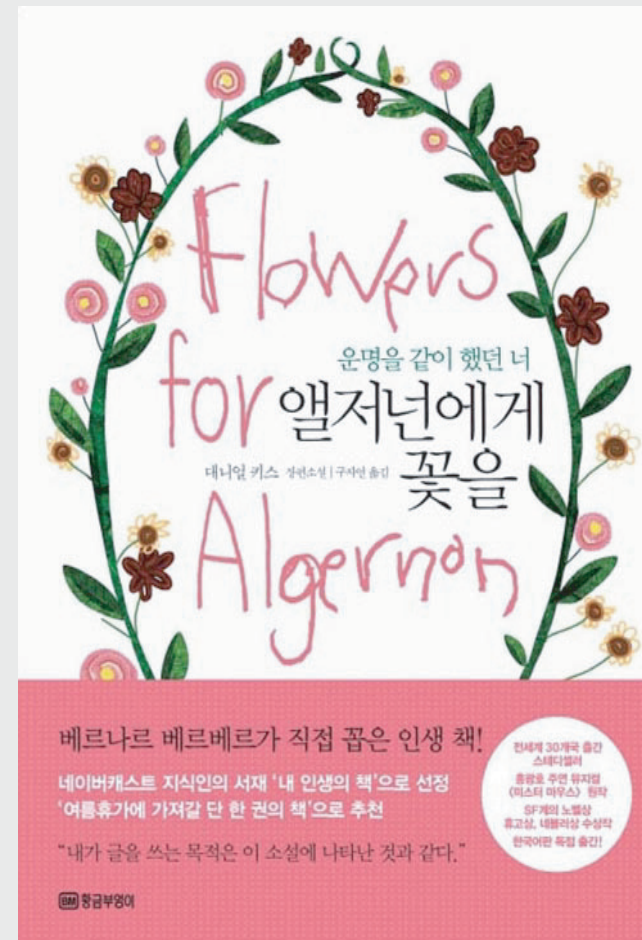
봄이 다 가도록 기다릴 필요는 없다. 무엇인가 완벽해 질 때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 않았던가. 오늘은 마당 구석구석 남아있는 겨울을 몽땅 쓸어낼 참이다. 바람이 실어온 묵은 먼지와 마루 밑 깊은 곳에서 겨울을 난 엉킨 거미줄까지. 햇살 도타운 날에 물 뿌려서 마루를 닦아내야겠다.



꿈작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윤석언 박수민 지음
포이에마 刊

지은이 윤석언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신 마비 상태로 27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오직 눈으로 자판을 치는 것으로 의사 표현을 할 뿐이다.
먹는 것도 배변도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 행할 수 없다.
오직 그에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님 곁으로 데려가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영적 친구 박수민선교사와 육체적인 도우미로 무료자원 봉사자 간호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늘가는 길에 동행하게 해주셔서 이 책을 내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무슨 말로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지은이도 도우미 간호사도 친구도 사람의 힘으로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함께 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다면,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앨저넌에게 꽃을

대니얼 키스 지음
구자연 옮김
황금부엉이 刊

역자는 말한다.
뇌수술을 받고 지능을 높일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앨저넌에게 꽃을>은 이런 가정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라고 역자는 말한다.
지능장애를 가진 찰리는 서른두 살이면서 어린아이의 지능밖에 가지지 못하여서 자신이 원하지 않던 삶을 살며 늘 사람들의 놀림감이었다.
그러나 수술로 찰리는 지능이 너무 높아진 후 사랑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역시 역차별을 받고 소외 된다.
역자는 후기에서 다시 말한다.
모두가 똑똑하다고 해서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며, 지능이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에 더욱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을 작가는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찰리는 수술의 효과도 없이 다시 퇴행하여 예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고 만다. 마침내 찰리는 그토록 가기 싫었던 보호소로 자원하여 가며 동병상련일까, 자신 스스로 모습을 보며 앞서 실험 대상이고 운명을 같이 한 모르모트 앨저넌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
이 작품은 저능아 찰리답게 맞춤법이 틀린 문장의 보고서로 시작하여 틀린 문장의 보고서로 끝을 맺는다. 